

금광기업 법정관리 졸업했다

광주지법, 회생절차 종료 선언 ... 세운건설서 인수 경영 정상화

세운건설에 인수된 금광기업이 법정관리를 졸업, 경영이 완전 정상화됐다.

8일 금광기업(주)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제1파산부는 이날 광주·전남 대표 건설사 법정관리 중인 금광기업에 대해 회생절차 종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지난 2010년 5월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법정관리에 들어간 금광기업은 개시 21개월만에 완

전 정상화됐다.

(주)세운건설 컨소시엄은 지난해 10월 7일 금광기업 옛 경영진이 소유한 주식과 출자전환주주의 주식을 인수하고, 금융기관 및 상거래 채권, 조세 채권 등을 상환했다. 인수 자금은 1000억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금광기업은 오는 2020년까지 채권 상환을 통해 회생절차를 이행하기로 했지만, 세운건설의 인수로 경

영 정상화가 7년여 앞당겨졌다.

금광기업을 인수한 컨소시엄은 (주)세운건설, (주)한솔건설, 건진건설(주), 오일랜드(주) 등 법인과 세운건설 대주주인 봉명철씨 등 개인 3명이 참여하고 있다.

봉명철 세운건설 대표이사는 "법정관리를 조기 졸업함으로써 신용도를 회복하고 각종 입찰에 정상적으로 참여해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게 됐

다"고 말했다.

한편, 화순에 본사를 둔 세운건설은 자사보다 시공능력평가액이 11배가 넘는 금광기업을 인수해 세간의 화제가 됐다.

세운건설은 지난해 시공능력평가액 378억원으로 전국 440위를 기록했으며, 금광기업은 4310억원으로 55위였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끝내 못이룬 화순火電의 꿈

광주권 지역경제 운동사 ⑦

화순화력발전소 건립 운동 ⑦

▲ 광주火電건설계획 확정
대전가오리변전소의 변압기 서 울이전 반대도민운동이후 광주·전남지역민들의 화순화전에 대한 미련은 더욱 간절해졌다.

만일 화순화전이 실현된다면 대전변전소에 매달리지 않고도 전력의 자급자족이 이루어지고 화순탄광의 증산은 물론 새로운 탄전의 개발을 기대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단 우리산림을 보존하는데 결정적 기여를 했고 가정용 취사난방연료로서 국민생활의 밑바탕을 이루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탄이 지나는 그 폐해와 부작용은 심각한 것이었다. 1985년 9월 서울대예방의 학교실의 발표에 의하면 연간 약 1백27만명이 연탄가스에 중독되고 이중 4200백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 되고있다. 이는 교통사고사망률에 뒤이은 피해 규모이다. 그런데 이러한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당시 연탄은 우리가정주부들의 생명을 위협했다. 1974년4월에 일어난 일이다.

광주여성단체협의회(회장 曹亞羅 당시 53세)가 YWCA에서 긴급 이사회를 열고 연탄폭격 해소추구를 결의했다. 이는 주부들의 분노가 폭발한것으로 연탄폭격을 조장하는 특권층에 대한 일종의 선전포고 이기도했다. 이들은 4월13일 시내4개 대단위 연탄공장에 회원 15명씩을배치, 압행감시에 나섰으며 그결과 특별배급을 청탁하는 특권층의 메모 3백여장을 색출하였다. 이로말미암아 당시 광주가 발각 뒤집혔다. 오죽하면 주부들이 나섰겠느냐며 시민들의 여론이 들끓었다.

다행히 그 부작용을 우려하여 특권층의 명단은 발표하지않고 불태워 버렸지만 그 경고적인효과는 대단한 것 이었다. 압행했던 연탄시대의 한도막 이야기지만 이제 그 연탄이라는날말도 '보릿고개'와 더불어 서민들의 애환을 되새기는 옛 추억이 되고 말았다.

광주·전남 전력 자급자족 기회 5·16으로 무산

연탄폭격에 주부들 '특권층 빼들리기' 암행감시

그러나 지역민들의 이러한 열망에도 불구하고 4.19이후의 시국상황은 이런문제에 관심을 기울일 겨를이 없었고 또다시 화순화전은 잊혀져 가는 듯했다. 그러다가 장면내각정부가 제자리를 잡아가던 1960년12월 상공부가 광주에 2만kw용량의 화력발전소건립계획을 발표했다.

이계획은 정부가 1951년 이래 광주·전남지역민들이 제기해온 화순탄광화력발전소 건립문제에 대해서 자유당정권말기인1958년부터 기술적인 문제를 포함한 경제성과 타당성 검토를 진행해 온 결과로써 1961년부터 시행되는 전원개발사업으로 확정된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입지를 화순탄광이 아닌 광주로 변경한 것은 화순탄광에 이미 철도인입선이 부설돼 있어 수송거리에 문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송·배전망의 여건을 감안할때 화순보다 광주가 더효율적인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었기 때

조기착공을 열망하는 건의서를 보냈다. 그러나 도민들의 이같은 부푼 기대는 길지 못했다.

광주화전 건설계획이 발표된지 5개월뒤인 1961년5.16군사혁명이 일어났다. 그리고 광주화전 계획은 없었던 일이 되었고 지역민들에게는 거듭된 좌절감만을 안겨 주고 말았다.

▲ 화전좌절 이후
화순화전건설의 꿈이 끝내 수포로 돌아간 이후 광주·전남지역의 연탄난은 1980년대말까지 지속되었다. 이는 석탄연료사용가구가 그동안 꾸준히 늘어나고 있었기 때문이다. 정부의발표에 의하면 1988년말 현재 연탄연료사용가구가 78%에 이르렀는데 이를 정점으로 도시가스의 대중화와 가정연료의 전력화가 이루어지면서 1993년에는 33%로, 그리고 2001년에는 1%로떨어졌다.

▲ 연탄의추억
사실 연탄은 황폐화 일로에 있

광주여성단체협의회(회장 曹亞羅 당시 53세)가 YWCA에서 긴급 이사회를 열고 연탄폭격 해소추구를 결의했다. 이는 주부들의 분노가 폭발한것으로 연탄폭격을 조장하는 특권층에 대한 일종의 선전포고 이기도했다. 이들은 4월13일 시내4개 대단위 연탄공장에 회원 15명씩을배치, 압행감시에 나섰으며 그결과 특별배급을 청탁하는 특권층의 메모 3백여장을 색출하였다. 이로말미암아 당시 광주가 발각 뒤집혔다. 오죽하면 주부들이 나섰겠느냐며 시민들의 여론이 들끓었다.

다행히 그 부작용을 우려하여 특권층의 명단은 발표하지않고 불태워 버렸지만 그 경고적인효과는 대단한 것 이었다. 압행했던 연탄시대의 한도막 이야기지만 이제 그 연탄이라는날말도 '보릿고개'와 더불어 서민들의 애환을 되새기는 옛 추억이 되고 말았다.



위 중 (연탄인)

코스피 2000 탈환

코스피가 외국인의 매수세에 힘입어 반년만에 2,000 고지를 탈환했다.

8일 코스피는 전날보다 22.14포인트(1.12%) 오른 2,003.73에 장을 마감했다. 코스피가 2,000선을 회복한 것은 작년 8월4일 이후 6개월만이다.

지수는 0.18% 오른 1,985.21로 출발해 장 초반부터 강한 상승세를 타고 오전 11시10분께 2,000선을 넘어섰다.

코스피의 2,000선 돌파를 이끈 것은 외국인이었다.

외국인은 이날 3977억원 어치를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주도했다. 올해 들어 외국인의 순매수 규모는 모두 8조5000억원을 넘는다.

개인은 차익실현에 나서 4086억원 어치를 순매도했다. 기관은 163억원 어치를 순매수했다.

프로그램 매매는 비차익거래 중심의 매수세로 2818억원의 매수 우위를 나타냈다.

전기가스(-2.35%), 섬유유복(-2.31%) 등을 제외한 대부분 업종지수가 올랐다. 특히 건설(3.33%), 종이목재(2.68%), 증권(2.64%)의 상승폭이 컸다.

코스닥지수는 1.88포인트(0.36%) 오른 520.95를 나타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2.9원 내린 1,115.8원에 장을 마감했다.

아시아 증시 주요 주가지수들도 일제히 상승했다.

일본 도쿄 주시시장의 닛케이225 지수는 98.07포인트(1.10%) 오른 9,015.59에 거래를 마쳤다. 대만 가권 지수도 2.11% 상승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31%) 등을 제외한 대부분 업종지수가 올랐다. 특히 건설(3.33%), 종이목재(2.68%), 증권(2.64%)의 상승폭이 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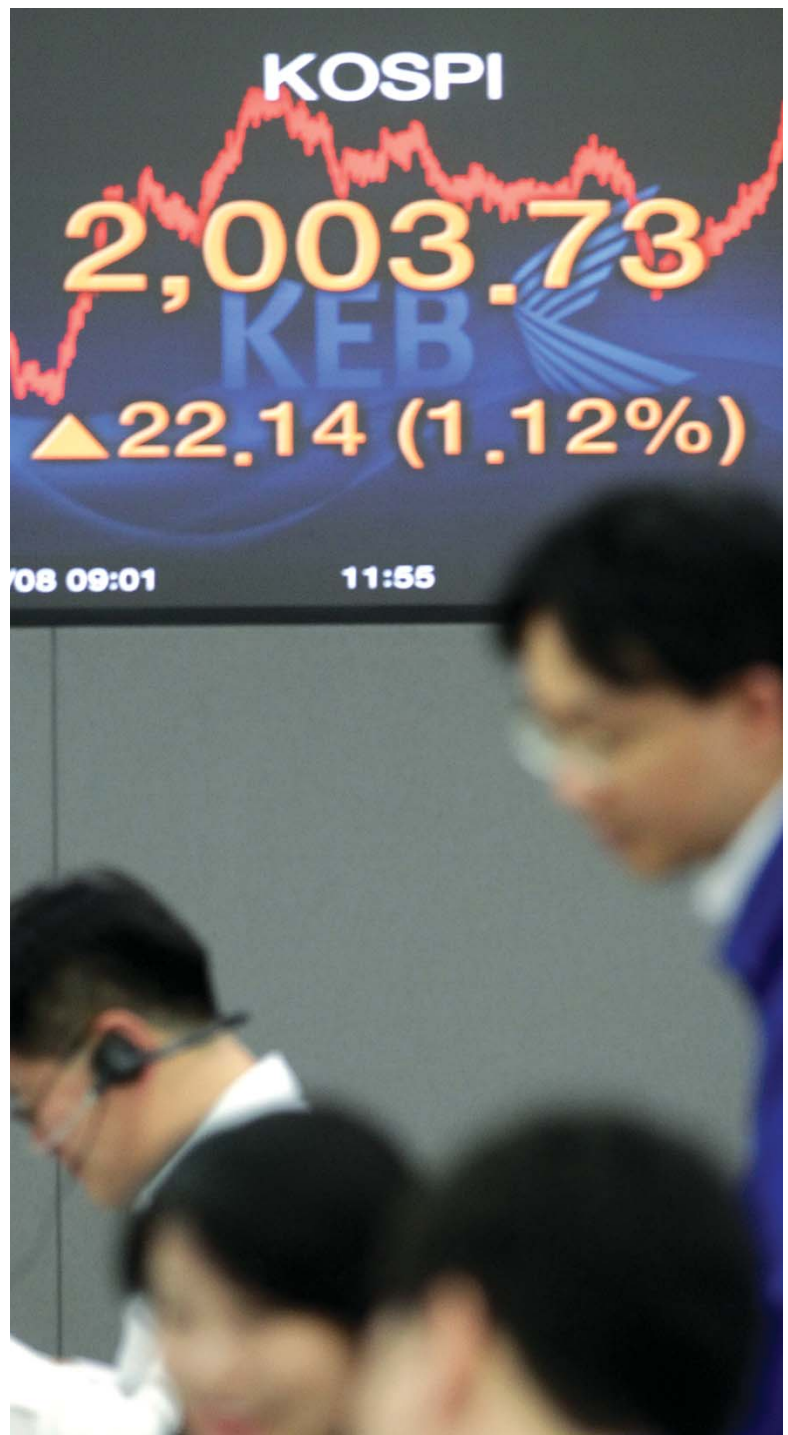
코스닥지수는 1.88포인트(0.36%) 오른 520.95를 나타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2.9원 내린 1,115.8원에 장을 마감했다.

아시아 증시 주요 주가지수들도 일제히 상승했다.

일본 도쿄 주시시장의 닛케이225 지수는 98.07포인트(1.10%) 오른 9,015.59에 거래를 마쳤다. 대만 가권 지수도 2.11% 상승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얼마만이나” 서울 명동 외환은행 본점에 설치된 모니터에 8일 코스피 지수가 표시되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날보다 22.14포인트(1.12%) 오른 2,003.73에 장을 마감했다. 코스피가 2,000선을 회복한 것은 작년 8월4일 이후 6개월만이다.

/연합뉴스

차보험료 인하 검토

다음달 결정 2~3% 거론

자동차보험료 인하 여부가 다음달 결정될 전망이다.

손해보험사들이 사상 최대의 순이익을 거뒀기 때문이다. 손보업계에서는 인하폭으로 2~3%가 거론된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업계 1위인 삼성화재는 최근 금융감독원에 자동차보험료 인하 의사를 타진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보험료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며 “손해율이 많이 낮아진 게 아니라서 소폭 인하 될 것 같다”고 전했다. 보험시장의 특성상 삼성화재가 보험료를 내리면 다른 대다수 손보사도 일제히 내릴 확률이 매우 높다.

/연합뉴스

▲ 코스피지수	2003.73 (+22.14)
▲ 코스닥지수	520.95 (+1.88)
▲ 금리 (국고채 3년)	3.44% (+0.02)
▼ 원·달러 환율	1115.80원 (-2.90)

※수치는 전일 증가 기준

주택대출 만족도 1위 '농협'

소비자원 1000명 조사

국내 주요 은행 고객들은 농협중앙회의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가장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은행은 주택담보대출 상담과 대출 과정, 사후관리에서 최고 평점을 받았다.

고객 입장에서 주택담보대출을 할 때 이자율이 가장 큰 고려 사항인 것으로 파악됐다.

8일 한국소비자원이 한국금융협회 컨설팅과 함께 최근 3년 내 은행에서 20~30평 미만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

면 주택담보대출상품 만족도는 농협이 7점 만점에 평균 3.53으로 우리·신한은행(3.52점)을 근소하게 앞질렀다.

주택담보대출상품 세부 항목 중 농협은 '주택담보대출 이외의 부가서비스'와 '무로 중도상환 기간 조정' 부문에서 1위였다. 신한은행은 '중도 상환 시 수수료 적정', 우리은행은 '기준금리의 다양한 선택'에서 최고점을 얻었다.

/연합뉴스

탈모방지 양모효과 그린나르모

그린나르모 케어 샴푸액 의약품 | 500ml

그린 나르모 케어 세트(샴푸+린스)

pH 밸런스 효과.
약산성 샴푸로 퍼머나 염색 등의 화학 작용 후 알칼리화되어 손상된 모발의 pH와 두피를 약산성으로 유지시켜주는 밸런스 효과로 건강하고 탄력 있는 머릿결 및 두피를 가꾸어 줍니다.

탈모 방지, 양모 효과.
비오틴, 니코틴산아미드, 텍스판테놀, 아연피리치온액을 주성분으로 하는 의약품 샴푸로 두피의 피지 조절 및 수분 결합능력 개선으로 탈모방지 및 양모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네추럴 추출물 함유.
알로에베라잎추출물, 녹차추출물, 케모마일꽃추출물, 로즈마리추출물을 함유하여 모발을 아름답게 유지시켜드립니다.

효능 · 효과 : 탈모방지, 양모

그린나르모 케어 린스 500ml

항산화능력이 우수한 비타민E 아세테이트와 네추럴 호호바오일, 네추럴 케어 물질인 구아파우더, 알로에베라잎추출물, 케모마일꽃추출물, 로즈마리추출물이 모발에 수분과 영양을 공급하여주며, 산뜻한 사용감과 모발코팅 및 유연효과로 건강하고 촉촉한 모발로 가꾸어주는 제품입니다.

그린 알로에 FOR YOUR HEALTH

고객상담실 080-234-6588

대한불교조계종 문빈정사 남골당 허가번호 : 제2006-1

극락전 남골당

선망부모와 당신의 묘지를 누가 관리하겠습니까?

모든 이들의 영원한 안락과 쉼터

가깝고 편안하고 아름다운 곳!!

무등산 문빈정사 극락전 남골당이 있습니다

- **후손들의 무관심과 관리소홀** 별초를 하지않아 황폐화된 묘, 메가 벗겨진 묘, 동절기를 거처 버려진 묘, 개인이거주의 만연과 전통적인 집단묘 및 친족, 이웃간의 상호부조의식 해이로 전국 무연고 묘는 총 묘지 2천만기의 40%인 800만기에 달하고 있습니다.
- **시신에도 해로운 매장** 이장을 해본 사람들은 분토 속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이승보다 더욱 편안해야 할 시신이 나무 뿌리와 벌레, 습기의 침해로 심하게 훼손되어 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 **깨끗하고 편안하게 모시는 장례법** 조상을 멀리 떨어진 산에 모셔 거친 자연환경과 천재지변 속에 두고 두고 고통받게 하는 것보다 화장을 하여 남골당에 봉안하면 언제나 깨끗하고 편안하게 모실 수 있습니다.

- 문빈정사

무등산 문빈정사 남골당 전경

무등산 문빈정사 남골당 예약 및 봉안문의 062) 228-0108, 010-5103-4004, 010-7179-0108